

사회



무등산 도립공원이 오는 2012년까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정상 부근에 있는 군 부대와 방송통신시설은 이설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주상절리가 절벽을 이룬 무등산 입석대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강운태 시장, 방송통신 시설도 ... 사유지 국·공유화해 시민들과 공유

2012년까지 국립공원 승격·주상절리대 세계유산으로

무등산 도립공원을 오는 2012년까지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무등산 생태계를 보전하고 역사적 가치를 가진 유적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무등산공원에서 열린 무등산자연보호 활동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등산처럼 산 정

상에 주상절리대가 있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입석대와 서석대 등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고 주상절리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외지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광주의 브랜드 가치도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무등산 정상 부근에

있는 군 부대와 방송통신시설을 이설하고, 사유지를 국·공유화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밝힌 내용은 6·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민선 5기에 추진할 100개 주요과제 가운데 ‘무등산의 품격있는 생태자원 관리’과제에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에 대해 최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까지 국립공원 승

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산 공유화와 관련, 무등산 관련단체 60여 곳은 지난 2000년 6월 무등산공유화재단을 설립해 ‘무등산 한 평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5만6000여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 모금과 토지 기증 등을 통해 54만9000㎡의 사유지를 매입, 공유화했다.

한편, 무등산은 광주시 동구와 북구, 전남 화순과 담양 등 4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총 면적은 30.23km²이다. 가운데 사유지는 57.1%인 17.27km²에 이른다.

전남대·광주 기독·전북대 병원

리베이트 의사 10명 징역 구형

광주지검

수년간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제약 업계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10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 기독병원 고모(41)·박모(39)씨와 전남대병원 정모(56)·또다른 정모(51)씨 등의 사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각각 7600만~1억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광주 기독병원 문모(60)·또다른 문모(39)씨와 전북대병원 김모(39)·이모(44)씨 등 의사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 등은 같은 기간 제약회사들로부터 2400만~3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김정숙) 심리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사들과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병원 주모(39)씨와 조선대병원 문모(39)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전남·북 병원 의사 10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기부금 형태로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병원 이사장과 제약사 관계자 등이 적발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사업을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9일 박모(49)씨 등 664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고법의 한강 사업 계획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장·직속 기관장 24명

전원 보직사퇴서 제출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으로부터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받은 전남도교육청 산하 시·군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 전원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8월말 정년인 무안과 목포 교육장을 제외한 전남지역 20개 시·군 교육장과 직속기관인 전남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수원·학생교육원장 등 24명이 우편을 통해 도 교육청에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7일 이들에게 9일까지 보직 사퇴서를 요청했으며, 시·군 교육장에게는 공문 등 공식적

차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당사자는 물론 한국교육 등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이날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한 교육장은 “공직자로서 뒷사람(교육감)이 내라고 하니가 내는 것일 뿐 이번 포 교육장을 제외한 전남지역 20개 시·군 교육장과 직속기관인 전남도교육과학연구원·교육연수원·학생교육원장 등 24명이 우편을 통해 도 교육청에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장 가운데 일부를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하이패스 50m 앞

시속 30km 이하로

경찰이 하이패스 통과 직후 일어난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르면 다음달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통과 최고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고시를 낸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고속도로 요금소 50m 앞부터 최고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명시를 내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의 명확한 근거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고시에서 고속도로 요금소 500m 전방에서는 시속 80km 이하, 300m 앞에서는 시속 60km 이하, 150m 앞에서는 시속 30km 이하 등 단계적으로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을 모두 없애고 요금소 50m 앞에서만 시속 30km 이하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목포해양경찰이 오는 13일 훈련운항을 앞둔 640t급 최신에 경비함인 태극 13호를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목포해경 최신에 경비함 ‘태극 13호’ 배치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3월 국내 첫 3000t급 하이브리드 경비함에 이어 최신에 경비함 태극 13호를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태극 13호는 640t급 길이 62m, 폭 9m, 5700마력 등 기관 4대로 워터젯 추진 방식으로 설계돼 최고 속력 36노트, 경제속력 시 2만 5550마일(목포~인천 7회 왕복구간) 정도를

운항할 수 있다. 주요 장비로는 최대 96마일까지 200개의 불표를 동시 탐지 가능한 근거리용 레이더 2대, 최대 수심 8000m까지 수중 탐지 가능한 소나, 80m 거리의 화재선박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 고속운항이 가능한 10인용 구조정 1대 등 최신 장비와 20mm 발칸포 등을 갖추고 있다.

송원 고제철 회장 부인 이요숙 여사 별세

송원그룹 고제철 회장의 부인인 이요숙 여사가 지난 8일 밤 11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1933년 광주 관산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 고 회장과 결혼했다. 슬하에 아들 고경주 금강기업 사장 겸 1차장검사 송찬엽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건주

남3녀를 뒀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062-220-3352)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일 오전 8시30분이며,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송원대학에서 열린다. 장지는 광주시 서구 용두동 선영.

“바지색깔 왜 그래?” 속옷가게서 행패

“속옷 가게 여종업원이 입고 있는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 손님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52·광주시 동구 용산동)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속옷가게에 들어간 뒤 종업원 김모(여·37)씨의 회색 바지를 보고 “왜 죄수처럼 회색 옷을 입고 있는냐”며 시비를 걸다가 손톱으로 정씨의 팔까지 찰라했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말하듯 하던 중 정씨가 ‘나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김모씨 연락처 kimho@kwangju.co.kr

비에 젖은 주말·휴일

광주·전남 최대 60mm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0일 오후 늦게부터 여수·해남 등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다”고 9일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남해안 20~60mm, 그 밖의 지방은 5~30mm.

휴일인 11일에는 장마전선 세력이 확대돼 광주·전남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해안과 동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일시적으로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과 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겠다. 이번 비는 12일에 그치겠으며, 제주도 해상으로 남하한 장마전선이 14일 북상해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지검장에 성영훈씨

광주고검 차장 임권수·지검 차장 이건주씨

검사장급 인사

법무부는 9일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을 광주지검장으로, 임권수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이건주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각각 광주고·지검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오직의 ‘빅 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대검 중수·공안부장 등과 함께 황희철(광주) 법무부 차관 등 고검장급 9명 등이 전진 유임됐다.

안창호(대전) 광주고검장은 유임됐으며, 성영훈(서울) 법무부 법무실장은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성 지검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등 오직을 두루 거쳤다. 갈매기(경기) 광주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권수(화순)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에는 이건주(인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승진 임명됐다. 임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이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의정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건리(합천) 광주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강경필(제주) 광주지검 차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아울러 이재원(광주) 전주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소병철(순천) 대검 형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김현웅(고흥) 부산고검 차장은 춘천지검장에 임명됐다. 정동민(경남



성영훈 지검장 임권수 차장 이건주 차장

양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 <검사장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관 ▲법무실장 함명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수남 ◇사법연수원 ▲부원장 최재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홍만표 ▲형사부장 송해은 ▲공판송무부장 정병두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득홍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경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성재 ▲서울고검 송무부장 강경필 ▲대전고검 차장검사 황운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임정혁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경재 ▲광주고검 차장검사 임권수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장 이재원 ▲서울남부지검장 갈매기 ▲서울북부지검장 이창세 ▲서울서부지검장 남기춘 ▲의정부지검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희의 ▲수원지검장 김영환 ▲춘천지검장 김현웅 ▲대전지검장 소병철 ▲청주지검장 국민수 ▲대구지검장 김진태 ▲부산지검장 박광수 ▲울산지검장 박찬수 ▲창원지검장 주철현 ▲광주지검장 성영훈 ▲전주지검장 정동민 ▲제주지검장 이건리
 ◇검사장급 신규
 ◇지방검찰청
 ▲대전지검 차장검사 한무근 ▲대구지검 1차장검사 백중수 ▲부산지검 1차장검사 송찬엽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건주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6분 해질 19시 49분
 달돋이 03시 21분 달질 18시 29분

장마전선 북상

차차 흐려져 오후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광주	차차 흐려져 비	23/29℃
목포	차차 흐려져 비	22/26℃
여수	차차 흐려져 비	22/26℃
완도	차차 흐려져 비	22/28℃
구례	차차 흐려져 비	21/29℃
해남	차차 흐려져 비	22/28℃
장흥	차차 흐려져 비	21/27℃
고흥	차차 흐려져 비	22/28℃
순천	차차 흐려져 비	22/28℃
영광	차차 흐려져 비	22/29℃
진도	차차 흐려져 비	21/28℃
전주	차차 흐려져 비	22/30℃
남원	차차 흐려져 비	21/28℃
축산도	차차 흐려져 비	22/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목포 00:49 06:24
 먼바다 동~남동 1.0~2.0m 12:40 18:1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5~2.5m 여수 07:37 01:47
 먼바다 남동~남 1.5~2.5m 20:26 23:42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6	23/27	23/28	23/29	24/28	23/29